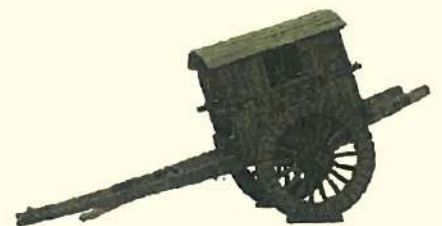


활동지로 배우는 실학

실학박물관 어린이용 활동지



학교:

학년:

이름:

실학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실학박물관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고향인
 마재마을에 있어요.
 실학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수집·연구하고,
 전시·교육하는 박물관이에요.

실학은 무엇일까요?

실학은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을 말합니다. 당시 조선사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차례의 큰 전쟁을 치루면서 황폐해진 나라를 부유하고, 강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이 때 백성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문을 연구한 것이 '실학'입니다.



김육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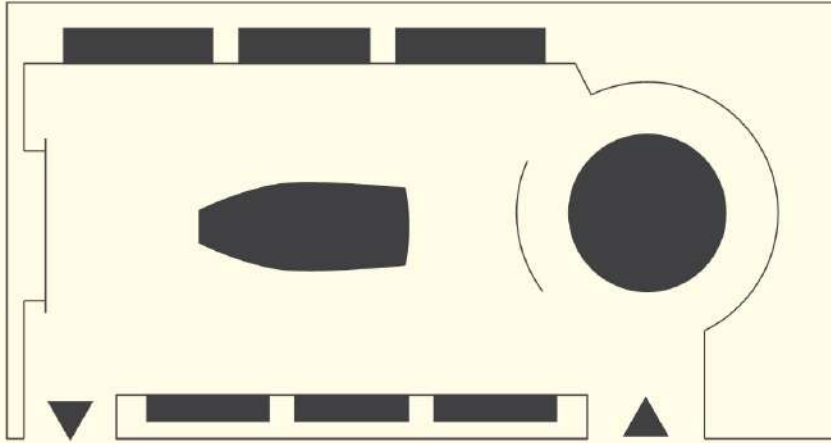


김석주 선생님

*대표적인 실학자 김육 선생님과 그의 손자인 김석주 선생님의 초상이 실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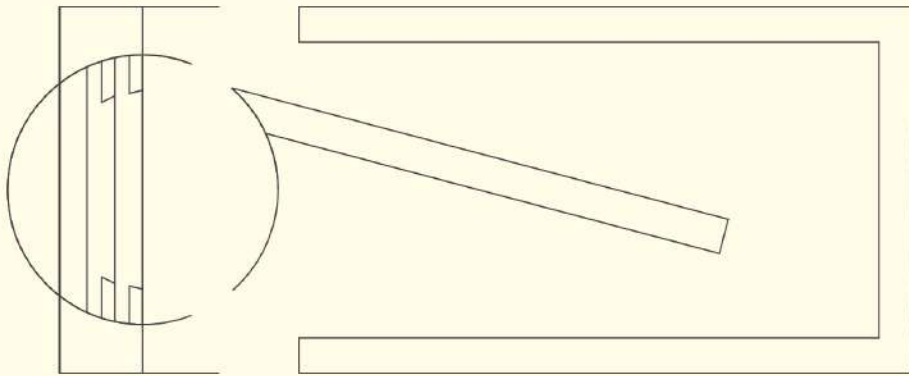
전시실 소개

실학박물관 전시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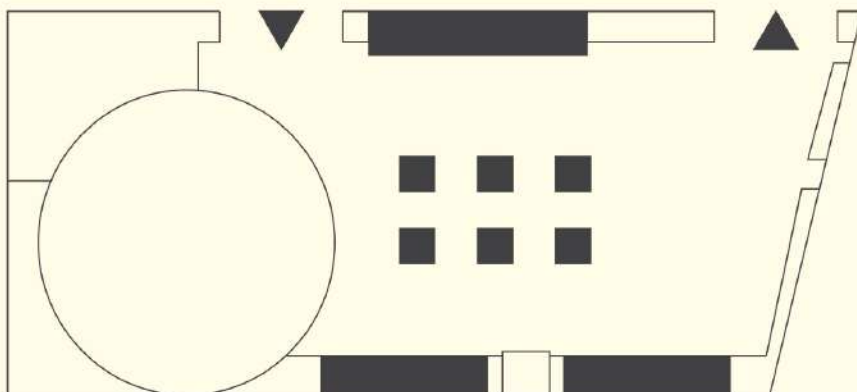
제1전시실

실학의 형성



제2전시실

실학의 전개



제3전시실

실학과 과학

실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아볼까요?

실학의 형성

조선을 세운 지 200년이 지나자 나라 안팎으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특히 일본, 중국과 전쟁(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나라와 백성들이 힘들어졌어요. 조선은 나라의 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후기 일부 학자들은 당시 학문인 유학(성리학)이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때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등장한 학문이 바로 실학이에요.

필요한 지식을 정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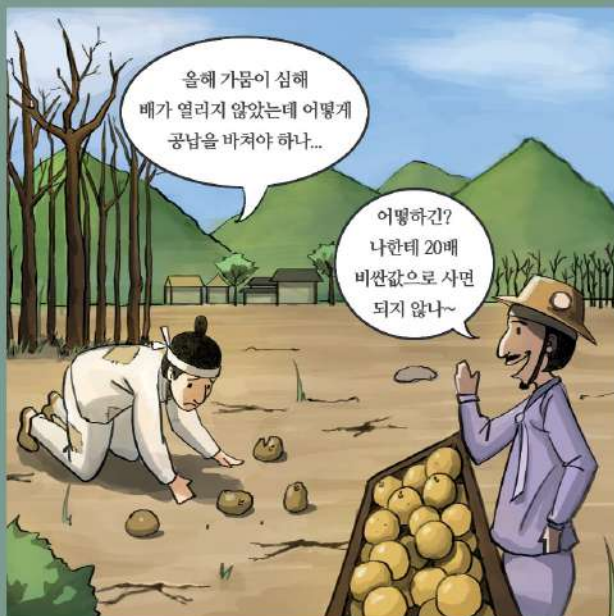
1. 세계적으로 왕래가 이뤄지면서 지식이 많아졌어요. 세 차례나 사신으로 중국에 다녀온 이수광은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모아 문화백과사전을 만들었어요. 이 책에서 동남아와 유럽을 포함해 세계 50여 개국을 소개했어요. 이 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책은 조선후기에 나온 여러 백과사전의 본보기가 되었어요.

불편한 제도를 개혁하다

백성을 힘들게 하고 나라에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제도는 고쳐야겠죠. 해마다 지역 특산물인 ‘*공물’을 거두는 제도는 백성들을 매우 힘들게 했어요. 가뭄이 들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특산물을 바쳐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담이 컸어요.



김육 선생님은 공물을 지역 특산물 대신 ‘쌀’로 통일해서 내도록 하고 쌀이 귀한 지방은 베(옷감)나 돈으로 내게 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균등하게 내던 것을 갖고 있는 땅의 크기에 비례해 내도록 하여 땅을 많이 갖고 있던 양반들에게는 반발을 샀지만, 가난한 백성들은 고통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육 (1580~165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공납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동법 실시를 주장함

*공물이란 옛날에 백성이 궁중이나 나라에 바치던 지방 특산물



2. 위와 같이 지역의 특산물을 거두는 공납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김육 선생님이 개혁한 제도를



법이라고 합니다.

3. 이 제도는 1608년 경기도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실시하기까지 100년이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을지 생각해 보세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제외

외부 세계를 살피다

조선은 중국과 일본으로 사신(외교관)을 보냈어요. 중국(청나라)에 보냈던 사신을 ‘연행사’라 하고, 일본으로 보냈던 사신을 ‘통신사’라고 했어요. 이러한 외교활동을 통해 다른 나라의 지식과 문물을 받아들였어요. 다른 세계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지요.

4. 청나라를 방문했던 사신들이 가져온 서적에서 옮긴 그림으로 당시 중국에 온 안남국(월남)사신, 서양 신부와 수녀, 서양인의 모습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입었던 옷차림과 비교해 보세요.



서양 문물의 전래

중국에 간 사신(외교관)이 중국에서 서양의 학문과 문물을 알게 되고 책과 물건을 조선에 가져왔어요.

5. 우리나라에 전해진 서양 문물입니다. 이름에 맞게 줄을 이어보세요.

①



•

• 안경

②



•

• 방성도

③



•

• 나침반

④



•

• 천리경

국가제도 개혁방안을 내놓다

조선시대는 도덕을 중요시하고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쳐서 문제점도 생겼지요. 도덕만 강조하고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돌보지 않자 점점 살기가 힘들어졌어요. 이와 달리 실학자들은 백성과 나라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했어요.

반계 유형원 (1622~1673)

유형원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열다섯 살 때는 전쟁(병자호란)이 일어나 가족을 이끌고 피난생활을 했지요. ‘왜 우리나라가 이토록 큰 고통을 겪게 되었을까?’하는 고민끝에 우리나라 제도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국가의 중요한 제도를 본격적으로 연구했지요.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반계수록>입니다.



전라북도 부안의 반계서당



반계 유형원 묘비 (탁본)

6. 유형원이 쓴 책으로 훗날 실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 책 이름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실학자를 알아볼까요?

실학의 전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연구한 실학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세상에 쓸모 있는 공부를

성호 이익 (1681~1763)

공부란 실제로 쓸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또 질문을 잘하는 것이 공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또 서양 과학기술이 매우 발전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역사와 지리를 연구한 것이 남아있어요. 여러 문물과 지식을 정리한 <성호사설>이란 책이 유명합니다.

세상 만물은 평등하다

담헌 홍대용 (1731~1783)

사람에겐 사람이 귀하고 동물에겐 동물이 귀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하늘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생각했어요. 그때는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는데,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모든 나라가 평등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사는 땅은 둥글며 생명체라고 생각했어요. 권세와 이익만 좇는 사람들의 헛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 <의산문답>을 썼어요.

생활이 편리하고 넉넉하게

연암 박지원 (1737~1805)

도덕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려면, 먼저 백성의 생활이 편리하고 살림이 넉넉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공업과 기술개발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청나라를 나쁘게만 말하는데,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청나라에게도 선진 문물이 있으면 열심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청나라에 여행 다녀와 쓴 <열하일기>지요.

낯은 우리나라를 새롭게

다산 정약용 (1762~1836)

조선 제22대 왕 정조 때 관료생활을 했어요. 수원화성을 만들 때 거중기를 만들어 사용하게 했어요. 그 덕분에 사람의 수고를 덜어서 많은 비용을 절약했지요. 훗날 유배생활 동안 낙심하지 않고 500권이 넘는 책을 썼어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 제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경세유표>와, 지방 수령이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지은 책인 <목민심서>가 유명합니다.

진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추사 김정희 (1786~1856)

그림과 글씨로 유명해요. 북한산에 서 있는 비석의 정체를 아무도 몰랐는데, 그것이 바로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는 것을 밝혀내었어요.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탐구한 성과였지요.

7. 내가 닳고 싶은 실학자는 누구인가요? 실학자의 이름과 대표적인 책을 적고, 친구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8. 실학자와 그의 대표적인 책을 맞게 이어보세요.



이익



홍대용



박지원



정약용



열하일기



의산문답



목민심서



성호사설

정약용의 가족사랑



자료 출처 : 국립민속박물관

정약용이 전라남도 강진에서 귀양(유배) 생활을 할 때, 학연과 학유 두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에 많은 편지로 당부를 했어요. 가족간의 사랑, 선비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남에게 베푸는 삶의 가치, 삶을 넉넉하게 하고 가난을 구제하는 방법 등 두 아들과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였어요. 이 편지는 정약용의 부인 홍씨가 보내온 빛 바랜 붉은 치마를 잘라 만들어 ‘노을빛 치마로 만든 첩’이라는 은유적인 뜻에서 ‘하피첩’이라고 합니다.

9. 내가 만약 귀양(유배)중인 정약용이라면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 것 같나요? 정약용이 되어 두 아들에게 당부의 편지를 적어봅시다.

조선후기 과학을 알아보아요!

실학과 과학

실학자들은 시간을 정확히 알고, 땅 위의 위치와 거리를 정확히 헤아리고 싶었어요. 서양의 과학기술이 많은 도움을 주었지요.

혼개통헌의



이슬람과 유럽에서 ‘아스트로라베’라고 불린 천문 기기인 혼개통헌의에는 하늘의 별자리 정보가 담겨 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사용했지요. 아스트로라베는 서양에서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유금(1741~1788)이 우리나라 사정에 맞게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었답니다.

신곤여만국전도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가 중국에서 만든 <곤여만국전도>를 1708년 조선 왕실에서 다시 그렸어요. 그동안 중국이 중심인 지도만 보아 왔는데, 이 지도를 보면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고 중국이 세계의 중심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지도를 실학박물관에서 2011년 원래 크기로 다시 만들면서, 새로 만들었다는 의미로 ‘신곤여만국전도’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10. 다음을 알맞게 이으세요.

①

하늘을 보고 시간을
알 수 있었어요

②

세계에는 어떤 나라들이 어디
있는지,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신곤여만국전도



혼개통헌의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지

1. 지름무늬
2. 대동
3. ①-나침반, ②-천리경, ③-안경, ④-박선도
4. 판계수늘
5. 이만-선호사첩, 홍대용-의상문답, 박지원-영화영기, 정약용-농민선서
6. ①-홍개통헌의, ②-신군여만국전도

마재마을 그림지도



발행 실학박물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16

• 본 활동지의 저작권은 실학박물관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 및 전재를 금합니다.